

# 호남인 기업가는 어떻게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했나

## 호남인 기업가의 창업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김일태·강덕균·임영언·박석강 | 전남대출판문화원 | 1만5000원



강진에서 태어난 영동농장 김용복 대표는 할아버지 밑에서 누구보다 어렵게 자랐다. 집안 형편이 여의치 못해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객지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고, 서른이 다 된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3년 만에 파산했다. 마흔이 넘은 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국용역회사에 고용된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사막 한복판에 '영동농장'을 설립하고 무, 배추 등 16종에 달하는 한국산 야채류를 재배하고 밭을 생산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농사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게 전 김 대표의 회고다.

전북 익산 출신 박상운 상하이 상운무역유한공사 대표는 상하이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다 지난 2008년 자본금 2억 원으로 상해상운무역을 창업했다. 25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그곳에서 27년을 거주해 온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비즈니스계에서 각종 '전설'을 만들었다.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중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즈니스맨"이라는 게 그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다.



지난 2018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궈낸 성공담을 공유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제공

한국 경제발전에서 이바지한 호남 출신 기업가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학술적으로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강덕균 전 전남일보 편집국장, 임영언 조 선대 겸임교수, 박석강 전남대 교수가 공저한 '호남인 기업가의 창업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이다.

책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채 인적·물적 측면에서 경제적 기반이 약했던 호남 출신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호남 정신의 발현,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이론을 토대로 성장하는 과정, 창업이노베이션과 금의환향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성공한 기업가로 자리 잡아 고향과 모국에 기여한 사례를 분석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개발과

정에서 나타난 수백만명에 달하는 호남인의 이동과정과 분포 및 활동상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호남출신 기업가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기업가 정신의 3대 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기업가로 성장했고, 성공을 거둔 후에는 모두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나눔 정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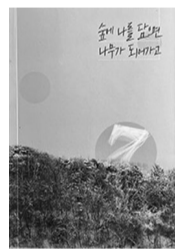
실천, 한국문화의 교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출향 호남인 기업가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 창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 사회와 기존기업의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창업했다.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업의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하거나 '구조적 공백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지속적인 창업 이노베이션도 그들의 성공 요인이었다.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후에는 타 지역에서 동향인들로 구성된 향우회에 가입해 향우들을 상호 지원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 각종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기부하는 나눔의 정신도 실천했다. 해외 현지 상공회의소회장, 한 상(韓商) 관련 단체 임원 등으로 참여, 한국과 해외 현지 국가 간 경제 및 투자 협력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거나 모국에 지속적으로 투자 활동을 전개해 한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저자인 김일태 교수는 "이 책은 '호남정신'을 기반으로 창업 이노베이션과 기업가정신을 실천한 출향 호남인 기업가들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를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나눔정신을 실천한 호남 출신 기업가들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환 기자** yonghwan.lee@jnilbo.com

## 지역 문학모임 '시다래 동인' 시집 발간

### 숲에 나를 담으면 나무가 되어가고 나명엽 외 | 플러스 디자인 | 1만5000원



생오지 문학회에서 시를 공부하는 회원 12명이 7번째 시집을 발간했다. 바로 우리네 인생사를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묘사한 '숲에 나를 담으면 나무가 되어가고'다.

생오지 문학회는 지난 2011년 문순태 소설가가 주도해 만든 지역의 문학모임이다. 그중에서도 시다래 동인지는 '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모였으며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전일빌딩245에서 창작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시집은 시다래 동인지의 지도교수를 맡은 강대선 시인을 비롯해 총 12명이

시인이 참여해 발간됐다.

특히 시집의 제목 '숲에 나를 담으면 나무가 되어가고'는 조선대학교에서 경영학 강의를 이어온 나명엽씨의 시 '백아 숲에 담기면'에서 따온 문구다. 시 '백아 숲에 담기면'은 나씨가 백아산에서 3박4일 동안 머물면서 자연에 동화되는 몰아임체의 심정을 묘사한 내용이다.

'고요해야 들리고 눈 감아야 보이는 백아산. 비워야만 담아지는 신새벽 빛은. 가슴에만 옷이 고인대네.'라는 구절에서 '비워냄'과 '받아들임'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나씨는 "시인의 삶은 일반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시를 쓰면서 끝없는 자기 성찰과 탐구를 했다. 그 안에서 내면의 심오한 경지를 마주한다"며 "독자들도 시 읽기를 통해 더 풍요로워진 삶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찐모녀 블루스'

### 은혜씨 덕분에입니다 장차현실 | 한겨레출판 | 1만6500원



지난해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이자 작가 정은혜. 그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낸 이는 누구였을까? 그는 바로 23년 차 만화가이자, '은혜씨 덕분에입니다'의 저자 장차현실이다. 한동안 자신이 만화가임을 잊고 살았던 '엄마 장차현실'이 그간의 '은혜 매니저' 일을 잠시 내려두고 자신의 '본캐'인 만화가로 독자들을 다시 찾아왔다.

이 책은 싱글맘으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며 때로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때론

그보다 더한 차별에 괴로워하면서도 은혜씨를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멋지게 키워낸 엄마의 육아일기다. 또한, 엄마와 딸이 지난한 삶을 함께 토닥거리며 통과해 온 성장일기이기도 하다. 책에는 은혜씨가 태어나던 날부터 열두 살 무렵까지 70가지의 에피소드가 1부~4부로 나누어 테마별로 배치돼 있다.

작가는 발달장애가 있는 은혜씨를 낳은 뒤 자신의 인생에 예고도 없이 닥친 큰 시련과 지독한 외로움에 절망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아이를 들쳐 업고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 세상과 직접 부딪히며 좌충우돌하던 모든 순간을 때론 코믹하면서도 진솔하게 만화일기로 그려냈다.

그동안 은혜씨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며 수많은 이에게 감동과 힐링을 선사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은혜씨

와 그의 엄마 장차현실의 진한 인생의 블루스를 함께 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한 선물을 얻어갈 것이다.

저자 장차현실은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1997년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에 '색녀열전'을 연재하면서 만화 활동을 시작했다. 그 뒤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삶을 담은 만화를 그려왔다.

2016년 장애가 있는 딸 은혜씨가 불현듯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충분히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 뒤로 발달장애인의 예술이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넘어 창의성, 다양성의 자원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양평에 장애 운동 단체를 설립했다. 현재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양평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 버사 표명희 | 창비 | 1만4000원

책은 무슬림 소녀 버사와 가족들이 난민 인정 심사를 위해 국제공항에 체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실어증을 앓고 있는 버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데, 가족의 진짜 딸이 아니라 가정의 두 번째 부인이 될 조건으로 함께 있었던 것. 게다가 본국에서 내전 중 집을 쳐들어온 군인에게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일을 당했다. 그런데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버사는 여전히 퇴보하고 있는 여성인권과 난민문제에 경종을 울린다.



### 해월 최시형 평전 김삼웅 | 미디어샘 | 1만9800원

동학사상을 오늘날까지 이르게 한 해월 최시형은 동학의 2세 조교로서 관군의 추적을 피해 무려 35년간이나 은둔생활을 하며 동학사상을 체계화했다. 결국 '좌도난정(다른 종교를 전파해 유교의 가르침과 법도를 어지럽히고 문란케 한 행위)'의 죄를 물어 교수형에 처하게 된다. 어쨌거나 동학사상은 모든 가치의 최우선으로 '생명'을 이야기한다. 현재 우리는 핵전쟁, 기후위기, 한반도 안보 위기 문제에 처해있다. 그 어느 때보다 동학의 생명존중 사상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 살인자와 프로파일러 앤 올버트 버지스 외 | 북하우스 | 1만8800원

이 책은 현대적인 범죄 수사자의 기틀이 만들어지던 1970~1980년대 미국 FBI아카데미의 심장부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저자인 앤 버지스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표준화했는데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를 대면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잡하게 얽힌 압호를 해독해낸다. 이로써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마음과 오래도록 고통받는 피해자의 마음에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한다. 과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충동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 왜 내 사업만 어려울까? 유주현 | 유아이북스 | 1만7000원

스타트업, 중소기업, 프리랜서까지.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사장이 될 수 있는 사회다. 이 책은 이런 사업을 시작한 사장, 사장이나니어도 높은 직급에 있는 이에게 독한 조언을 건넨다. 회사를 운영, 경영하며 깜빡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생기는 조직 운영부터 마케팅, 브랜딩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축약한다. 저자는 20년 넘게 홍보 담당자로 살면서 수많은 CEO의 성공, 실패를 목격했다고. 업계에선 국내서 가장 많은 수의 사장을 만난 홍보쟁이로 통한다.



### 보도 새퍼 부의 레버리지 보도 새퍼 | 비즈니스북스 | 1만7500원

당신은 아직도 '일한 만큼만' 버는가? 압도적 부를 이룬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보도 새퍼의 경제적 노하우와 부의 공식이 이 책에 모두 담겼다. 저자는 돈 벌기가 일종의 '게임'이라고 말한다. 게임의 규칙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단순해지고 남보다 먼저 부를 얻는 승자가 될 수 있다. 직장인, 프리랜서, 투자자, 기업가, 전문가 분야별 고소득을 이루는 저자만의 전략을 소개한다.

